한국남부발전(주) 보도자료

날짜 2025. 10. 30.(목)

한국남부발전, 임금피크 반장 위촉… 세대 연계와 지식 전수의 중심 역할 맡는다

- 선배의 경험이 후배의 역량으로… '베테랑 멘토' 역할 기대 -

□ 한국남부발전(주)(사장 김준동, 이하 '남부발전')은 지난 29일 본사에서 임금피크 적용 직원 중에서 조직 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을 반장으로 위촉하는 '임금피크 반장제' 제1기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인 퇴직 전 경험 공유와 세대간 협력 강화를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조직 내 멘토이자 세대 간 소통 창구로 참여하도록 한 역할강화형 제도이다. 반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각 사업소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발전설비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 등을 직무 멘토링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후배에게 전수한다. 이를 통해 세대간 연계와 지식공유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.

□ 이날 임명식에서는 반장 임명장 수여 후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시간이 마련되어, 반장으로 임명된 직원들과 함께 제도 운영 방향과 현장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했다.

□ 김기홍 인사처장은 "임금피크 반장제는 조직의 소중한 자산인 선배들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이어져 안전한 발전소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가 될 것"이라며, "임금피크 세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후배 직원과 조직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□ 남부발전은 임금피크 반장제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'퇴직 전 전문역량 활용'과 '세대 간 협력문화 확산'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. 나아가 이번 제도가 공공기관으로서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

29일 남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'임금피크 반장제 제1기 임명식'에서 남부발전 김기홍 인사처장(왼쪽에서 다섯 번째)과 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홍보실	담당자	대리	홍승화	(070-7713-8172)
	인재개발부	담당자	차장	송희경	(070-7713-8762)